

January 2016. vol 128

# MONEY



Big Story

## The investment for me 2016

상속 분쟁 유형별 대응 전략  
미국 금리 0.25%의 파괴력  
불 뿜는 은행 자산관리 전쟁  
돌아온 LP, 남자를 울리다



한국경제신문

# 돈은 내연녀가 챙기고, 세금은 본처가 내라?



상속세와 관련해 납세자들이 억울해하는 규정이 바로 제3자 증여와 상속재산추정이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무조건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과 피상속인이 사망 전 2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인출한 현금의 거래 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등 용처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건데 웃지 못할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진다.

법무법인 지평의 구상수 회계사와 마상미 변호사가 쓴 '상속전쟁'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보경은 대학 시절부터 자신을 좋아한다고 따라다니던 선배 형석과 결혼했다. 남편은 능력을 인정받아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했고, 1남 1녀의 자식까지 두어 남부러울 것 없는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우나에 갔던 남편 형석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죽고 만다. 그로부터 1년 후 세무서에서 보경에게 한 통의 고지서가 날아온다. 그 속에는 돈도 보도 못한 '민주'라는 여자의 상속세를 대신 내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이야기인즉 이렇다. 민주라는 여자는 남편의 내연녀였다. 남편은 그녀에게 몰래 돈을 주었고, 10억 원이라는 돈은 내연녀가 챙겼는데 아내인 보경이 그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거다.

구상수 회계사는 "사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피상속인이 죽기 전에 상속재산을 빼돌

려 상속세를 적게 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라며 "이 규정이 없다면 피상속인이 사촌이나 친척 등에게 재산을 증여해 낮은 증여세만 낸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나서 상속인들이 다시 재산을 되찾아 오는 식으로 고율의 상속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이 규정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위헌소송을 냈지만 헌법재판소(헌재2005헌가4)에서는 "법을 조항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근거에 따른 차별로써 이를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이거나 차별적 과세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헌법상 평등권 내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속재산 추정 규정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내연녀의 요청에 의해 가족 몰래 거액을 인출한 경우, 도박 비용, 민간요법이나 민간의술 치료에 지출된 비용, 개인적인 채무를 몰래 변제한 경우, 무속인에게 지출된 비용 등 상속인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비용이 거액의 세금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경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 사용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김없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세금을 물린다. 피상속인이 자금의 사용자인 데도 그 입증은 올곧이 상속인들의 책임으로 남는 것이다.

구 회계사는 "피상속인이 사용한 재산의 사용처를 전부 입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증빙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수준의 생활비나 치료비, 품위유지비 등 사회통념에 합치되는 기준의 금액은 입증하지 않더라도 인정하는 편이다"라고 전했다.

상속재산 추정 규정 역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위헌소송을 냈지만 헌법재판소(2010헌바342)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반대 의견도 상당해 당시 헌법재판소의 일부 재판관들은 "자신의 행위와는 무관한 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납세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규정은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상속인의 재산권 제한의 정도가 아주 심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한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상속재산 추정 규정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내연녀의 요청에 의해 가족 몰래 거액을 인출한 경우, 도박 비용, 민간요법이나 민간의술 치료에 지출된 비용, 개인적인 채무를 몰래 변제한 경우, 무속인에게 지출된 비용 등 상속인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비용이 거액의 세금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